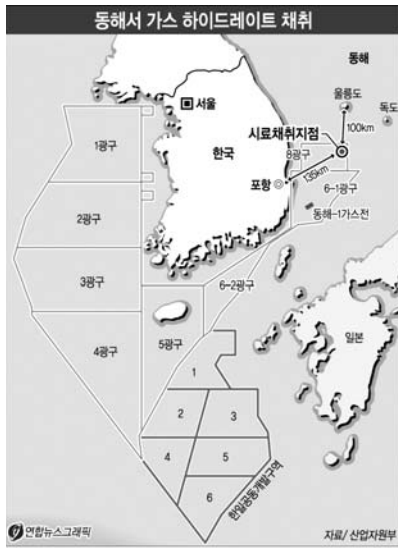


[종합·국제]

‘화석연료’ 대체 미래 청정에너지

■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정부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이 최근 동해 심해저에서 채취에 성공한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화석연료를 대체 할 미래의 대표적 청정 에너지로 꼽힌다. 21세기의 신에너지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천연가스가 저온·고압 하에서 물분자와 결합돼 형성된 고체 물질로 물분자 내부에 포집(抱接)해 있는 메탄이 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도 불린다. 1cc의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표준상태의 메탄 160cc를 갖고 있어 ‘농축 시킨 천연가스’로 볼 수도 있다.

이 하이드레이트가 알려진 것은 1930년대였으나 원유나 천연가스가 풍부해 개발에는 별다른 관심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석유 등 에너지자원이 고갈되고 세계각국의 환경보호 정책에 따라 연소시 지구온난화 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이 적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메탄이 95%...일명 ‘블루 에너지’
연소시 CO₂ 발생량 석유의 절반
고체상태 가스 분리 기술이 관련

이런 기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지금까지 심해저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 실물 채취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일본·인도·중국 뿐이어서 우리나라가 5번째다.

정부는 오는 2014년 말까지 단계에 걸쳐 총 2천257억원의 재원을 투입, 탐사 및 상업생산 기술을 개발한 뒤 2015년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 네덜란드로부터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선을 운송해 14곳의 시추 후보지 가운데 동해 해상 5곳에서 본격 심해저 시추를 벌일 예정이다.

⁀빅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EU, 헌법 대신 새 조약 합의

대통령직 신설 등 2009년 상반기부터 발효 폴란드 반대 ‘이중다수결’은 2017년 이후

유럽연합(EU)의 헌법이 새로운 ‘개정조약’(Reform Treaty)의 형태로 살아나게 됐다.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은 23일 새벽 브뤼셀에서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2년 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새로운 ‘개정조약’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1일 시작된 이번 회의는 폴란드가 결건 개혁에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위협하고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폴란드를 배제한 채 합의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

하지만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스페인, 룩셈부르크 정상들이 적극 나서 폴란드의 대통령과 총리를 맡고 있는 레흐와 아로슬라브 카친스키 형제를 설득, 마지막 벽을 넘어선 데 성공했다.

정상들이 진통 끝에 합의한 새 조약은 2005년 부결된 헌법에서 문제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으로, 부결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국민투표를 피하기 위한 ‘미니조약’으로도 불린다.

이번 조약은 정상들이 합의한 초안을 토대로 7월부터 정부간 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EU 정상들이 연말 회의에서 조약 최종안을 승인하면 2008년 중 각 회원국의 비준을 거쳐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된 2009년 상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새 조약은 그러나 EU 대통령직 등 법규와 제도 등의 혁신을 위한 핵심조항들은 그대로 담고 있어 창설 50년만에 정치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폴란드의 반대로 새 조약 초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이중다수결제는 도입시기를 당초 헌법안의 2009년에서 2017년으로 한참 미루는 선에서 타협했다.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27일 퇴임하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왼쪽)와 유럽의 새로운 지도자로 각광받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23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린 브뤼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27개 회원국 중 15개국(55%) 이상이 찬성하고 역내 인구의 65% 이상이 찬성하면 주요사안을 의결토록 한 이중다수결제는 27개국으로 덩치가 불어난 EU의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으로 인식되고 있다.

EU 대통령은 그대로 신설되며 새 외교총괄직도 신설되며 직명은 외무장관이 아닌 외교정책대표로 부르기로 의결을 모았다.

하지만 EU에 초국가적 자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가, 공휴일 등 상징에 관한 조항은 삭제키로 했다.

새 조약 초안은 영국이 우려한 노동과 사법권에 대한 EU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관리들이 말했다. /리태셀·연합뉴스

천연가스처럼 95% 이상이 메탄으로 이뤄진 이 하이드레이트가 기존 천연가스의 매장량보다 수십 배나 많고 연소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 석유의 절반에 불과한 청정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적으로 10조여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동해지역의 매장량만도 국내 가스 소비량 30년분에 해당하는 약 6억t 선으로 추정된다.

세계적으로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개



중 여성들의 전통춤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2008 베이징 올림픽 문화축제’에서 중국 여성들이 전통춤을 선보이고 있다. /AFP·연합뉴스

“美, 대북지원 관련 이중적 태도”

WP, 10년간 10억불 이상 제공

구체적으로 1995년 이후 미국은 북한의 거금을 해소하고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장 야망을 포기토록 한다는 희망 아래 10억달러 상당의 식량과 연료를 제공했으며 북한과 외교적 접촉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국 내 비영리단체나 대학을 통해 북한 외교관들의 미국 방문 경비를 지불해 왔다.

이와 관련해 마이클 그린 전(前) 백악관 아시아 보좌관은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뇌물 제공에 관한 한 UNDP는 (미 정부에 비하면) 사소한 위반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潘 총장 ‘김치 외교’

WP “쓰소리 마다 않고 현안에 매운 지적”

갓까지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민감한 외교 현안들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김치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 주 말매거진 퍼레이드가 23일 보도했다.

퍼레이드는 이날 ‘반기문은 유엔을 구할 수 있을까?’라는 커버스토리에서 스캔들과 회원국들간의 갈등, 미국으로부터의 신뢰 상실, 전쟁 방지, 인권 증진, 핵 비확산 등의 난제를 떠맡은 반 총장이 문제해결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그가 성공할 여부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이 같이 전했다.

외교의 힘이 조국인 한국을 구했다고 믿는 반 총장은 모든 분쟁은 외교적인 방법으로 평화로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고 퍼레이드는 지적했다.

반 총장은 “외교가 듣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의견을 다룰 수 있는 최선이자 유일한 길은 외교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 총장은 이에 따라 “김치 외교”라고 불릴 수 있는 ‘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팔레스타인의 로켓 공격을 강력히 비난하는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분리장벽에 반대하는 등 민감한 외교현안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 또 이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배워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매운 김치와 같은 따가운 충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예시했다. /워싱턴=연합뉴스

“라바울의 한국인 위안부들을 아십니까”

호주 사학자, 위안부 3천여명 관심 소홀 개탄

가서 얻은 자료들을 위안부 문제에 대한 논쟁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넬슨 박사는 자신이 수집한 자료에는 일본 의사들의 연구 보고서, 라바울에서 근무했던 일본인들의 회고담, 라바울 일본군 위안소에서 일했던 한국인 여성의 증언, 일본군과 호주군 포로들의 진술 등이 들어있으면서 그러나 호주에서 나온 보고서들은 라바울에서 2년 동안 운영됐던 위안소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라바울은 2차 대전 당시 호주의 통치령이었던 뉴기니의 행정 중심지로 1942년 1월 어느 날 일본군들이 단 하루만에 점령, 1천여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160명을 학살했다.

호주는 1945년 이 지역을 되찾은 후 일본군 점령기간에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으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넬슨 박사는 주장했다.

그는 당시 일본군 포로들이 라바울에 20여개의 위안소가 있었다는 증언을 했다면서 각종 문서들을 보면 위안부들의 근무 시간, 요금, 행동수칙 등이 모두 나와 있다고 밝혔다. /오콜랜드=연합뉴스

사립교사 공채안내

영양교사 교수진 특별초빙강좌
2008년도 사립공채 모집안내
사립학교 수급계획에 따른 공채

지금(올해) 바로 최적기입니다
“전 과목”
2009년부터 모집요강 변경예정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직원채용 (정규직)
◎ 2년제이상 졸업자
◎ 남,녀(30세미만)
◎ 이력서지참요

주관: 전국교육신문사
교육정보연수원

광주지원 TEL. (062)511-6359
H.P. 017-631-4467
서울지원 TEL. (02)3664-5263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이란 강도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시정입니다. 마술을 통하여 어린이에게는 꿈과 아이유 향상을, 성인에게는 개인의 장기개발 및 취미생활로 활용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분은 웃음을 잃은 사람에게 용기와 꿈과 희망을 주는 데 목적이 있으며, 무료교육 프로그램은 마술에 관심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사회복지사에서 실시하는 무료강좌 프로그램입니다.

♣ 모 / 집 / 대 / 상 ♣

- 유치원, 초, 중등교사로서 수업에 활용하실분
- 봉사활동 및 취미로 배우시려는 주부 및 어르신
- 마술에 관심있는 초, 중, 고등생 및 일반인
- 소극적인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응용
- 비즈니스를 위한 영업전략에 활용하실분
- 초, 중등생 게임중독치료 및 발표력 향상
- 초, 중등 특기적성 마술교사로 활동하실 분(취업추천)

무료 초·중등 어린이 마술특강 개설

마술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과 아이유 향상 및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EQ(감성)지수도 높여준다. 특히 성격 개선 및 각종 발표회에 활용할 수 있다.

★ 교육기간 : 주1회 8주 2개월
★ 교 육 비 : 무료(미술도구비 별도, 개인소장)
★ 교육장소 : 롯데백화점점 제일B/D 3층
★ 접수방법 : 선착순 20명 전화 예약 접수(개인교습)

○신기한 1일 마술교실체험 유치원 초·중등학년 태권도도장, 각·예능학원
○각종행사, 미술 출장공연, 어린이 관련행사, 동문회, 교회행사, 아유회
○어떤 행사라도 마술사가 신비하고 재미있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526-2500

제1회 경찰청인증 공인자격, 10월 14일 확정 도로교통사고감정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란 도로상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 부기관이나 사고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교통사고조사 전문가를 말한다. WTO가 입증 교통사고의 사망률이 각각 1.29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정부는 당사자간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선진교통사고조사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경찰청 주

설감정사 등으로 업무영역이 매우 넓어, 매년 수 천명 이상의 수요가 예상(일부 전문가는 2-5년 이내에 최소한 8,000명~40,000명 이상으로 예측)하며 신규 교육강종에 대해 업계와 당국의 관심은 매우 크다. (참고: 사고발생 약 21만건, 사상자 약 34만명, 이의 신형분쟁 매년 수천건씩 증가, 이상 2005년 경찰청 발표)

시험과목으로는 교통관련법규등

마무리 적중 문제풀이 특강 실시(광주)

법적 공신력 부여, 조사 자료증거 채택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취업가능

관으로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미국 등 OECD가입 선진국들은 이미 제도가 정착되어 조사전문가 에 의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결정적으로 뒤바뀌게 하거나 사고원인에 도 영향을 주어 고액의 대령수수료 는 물론 전문가로서 사회적 명성까지 한순간에 획득하여 고소득 전문 직으로 인기가 매우 높다.

시행령의 발표에 따르면 「도로교통 사고감정사」의 주요 진출분야로는 도로교통사고 관련 검찰, 경찰, 법원, 군 헌병 등 공무원직 기관이나 도로관리, 국영기업체 및 정부 산하기관, 일반 교통관련기업체, 사

4과목 객관식과 실무이며, 전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응시자격 은 만18세 이상으로 학력·경력과 무관하다. 특히, 일반시험에 마땅한 수험교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응 시자를 위한 교육원의 안내자료와 특별교육까지 준비돼 있어서, 국가 공인 제 1회라는 시험특성까지 감안 하면 시험 취득엔 올해 유래 없이 많 은 국가공인 「도로교통사고감정 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상담문의/(062)528-7788

- 자적인증거: 경찰청
- 시험주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자료제공: 교통사고감정교육원